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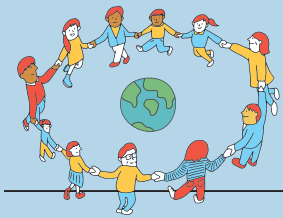
Magazine

# 새벽종



## 더 멀리, 바라봄

모든 인류의 행복과 번영으로  
향하는 길, 지구촌새마을운동



지구촌 모든 인류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으로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매거진 〈새벽종〉 e-Book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 서재



에스24



ISSUE NO.16  
ISSN 2799-9343

2024 09+10 제16호

새마을 중인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

반가운 올림  
김광림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 스타뷰  
경상북도새마을회  
경기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봉사단

별책부록 | 박정희 대통령 친필 〈새마을운동 구상〉



- ▶ [youtube.com/@saemaul](https://www.youtube.com/@saemaul)
-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https://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xkxT](https://pf.kakao.com/_zNxkxT)

## 더 멀리, 바라봄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끈 새마을운동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뿌려진  
새마을운동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저마다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등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도  
농촌 개발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 CONTENTS

2024 09+10  
제16호



**발행일**  
2024년 9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김광림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THEME

모든 인류의 행복과 번영으로  
향하는 길, 지구촌새마을운동

### 06 새마을 줌인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

### 10 새벽종 소리

새마을운동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이 그려가는 세상

### 14 반가운 올림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 미래를 여는 새마을운동

김광림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 18 함께 공감

새마을운동, 지역 개발에서 세계 발전의 모델로

구자문 한동대학교 교수

### 20 새마을 타임즈

굴하지 않는 신념으로 마을을 변화시킨 개척자

### 22 새마을 인터뷰 ①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새 지평을 열다

경상북도새마을회



### 26 새마을 인터뷰 ②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지구촌 이웃

경기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

### 30 청년, 미래 그리고 새마을

문화 장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2024 대학새마을동아리 하계 새마을해외봉사단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 34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1년차 국가 온두라스, 파푸아뉴기니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3년차 이상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 38 희망 에세이

칭찬으로 물드는 새마을가족의 가을

따뜻한 한마디가 단풍처럼 퍼지다

### 40 limp 여행

역사와 자연이 빛어낸 도시

경상남도 진주시



###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작은 실천

버려질 물건에서 숨겨진 가치 찾기

### 46 새마을 포커스

### 58 새마을 라운지

#### 별책부록

박정희 대통령 친필 <새마을운동 구상>

#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

##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



새마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을 통해 지구촌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가 지난 9월 4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렸다.

지구촌 곳곳에 새마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을 가속화하고, 우리나라가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이끄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진일보하는 기회가 됐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실, 신성욱



대회를 전하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한 글로벌 협력국 국장들

### 새마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는 세계 각국이 지구촌 전역의 빈곤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와 현지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가 연계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한 안젤라 촘바 카완다미(Angela Chomba Kawandami) 잠비아 지역 개발사회복지부 차관, 필립 레오(Philip Leo) 파푸아뉴기니 지방자치부 차관, 로티 바이세카베아(Lottie Vaisekaves) 솔로몬제도 농촌개발부 차관 등 지구촌 45개국의 고위급 공무원과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aemaul Undong Global League, SGL) 대표단, 새마을 협력관, 주한 외국대사, ODA(공적개발원조) 유관기관 관계자, 중앙회 회원단체장, 시도새마을 회장, 유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주요 인사를 환영하는 사전환담이 마련됐다. 김광림 회장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를 통해 각국에서 이룩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발전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로티 바이세카베아 솔로몬제도 차관, 안젤라 촘바 카완다미 잠비아 차관,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필립 레오 파푸아뉴기니 차관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

##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하나가 되다

9월 4일 오전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의 문이 열렸다.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 깃발을 필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 참가국의 국기를 든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대에 차례로 올랐고, 새마을기가 대미를 장식했다. 현장에 모인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은 새마을정신의 전 세계 확산을 통한 빈곤 퇴치와 지구촌 공동번영을 염원했다. 이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김광림 회장은 “함께 잘사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지역개발모델로 정책화하는 분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의 의의를 전했다. 이어 안젤라 촘바 카완다미 차관과 필립 레오 차관이 각각



지구촌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국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구촌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지도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루톨라 쇼코 루시아(Lutula Shoko Lucianne)', 캄보디아의 '친 보땀(Chin Bounthoum)', 피지의 '세루우페펠리 우드레(Serupepeli Udre)', 우간다의 '이사빌레 스테픈 로울리(Isabirye Stephen Lowly)'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알렌 로스(Allen Los)'가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이들은 탁월한 리더십과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사빌레 스테픈 로울리는 우간다 세타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로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새마을정신을 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였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외 해외 주요 인사들이 글자 퍼즐을 맞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완성했고,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새마을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새마을운동

오후에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 회의 이후 올해는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국장 회의가 마련된 것이다.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의 개회 선언 이후 안성일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국장의 새마을운동 추진 체제와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발제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11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시범마을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이어 비(非) 사업국가의 새마을운동 현지 적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는 각국의 새마을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빈곤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새마을운동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지구촌새마을운동이 그려가는 세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경험과 사례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개발 모델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잘사는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지금도 새마을 바람은 전 세계에 나부낀다. 세계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살펴보자.

글. 편집실 사진. 홍보실



## 지구촌 곳곳에 스며든 새마을정신

###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



캄보디아의 룬똌 뜨마이 마을에서 이뤄진 양돈사업



온두라스의 라 플로리다 마을에 만들어진 제방소 및 새마을 장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각국의 마을에 적합한 지역개발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지구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마을운동 사업대상국과 함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중이다.

시범마을의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지원과 현지 마을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주민 의식 개혁을 비롯한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시범마을 인근 지역으로도 새마을운동이 전파·확산되고 있으며,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자생마을이 생겨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기준

#### 시범마을

10국 44마을

온두라스(4), 라오스(4), 피지(3), 동티모르(4), 우간다(7), 키르기스스탄(4), 도미니카공화국(4), 캄보디아(4), 잠비아(4), 부룬디(6)

#### 자생마을

9국 449마을

라오스(10), 동티모르(2), 미얀마(9), 네팔(2), 캄보디아(1), 우간다(352), 부룬디(54), 파푸아뉴기니(15), 키르기스스탄(4)

(\* 자생마을 수는 현지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 지구촌새마을운동 성과관리위원회의

3회



#### 새마을협력관 위촉 및 운영

13국 / 17명



#### 시범마을 현장지도점검

1국 잠비아



#### 시범마을 조성사업 성과평가

3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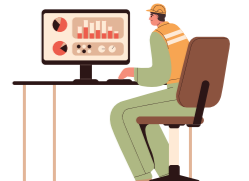
- 종료평가(5년 차) 온두라스(2019~2023)  
- 중간평가(3년 차) 우간다, 동티모르(2021~2025)



#### 시범마을 및 자생마을 모니터링

9국

온두라스, 라오스, 피지, 동티모르,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잠비아, 부룬디



## 이해와 배려로 동행하는 여정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새마을운동



도미니카공화국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와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새마을교육으로 현지 주민의 의식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했다. 새마을교육은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이론 및 사례 강의,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의식 개혁과 사업 추진 역량을 배양하는 새마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협력국가의 마을주민과 공무원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새마을운동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현지연수·현장교육·1일교육 등 국가, 마을, 사업 연차별로 교육방식과 내용을 다변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b>초청교육</b> 9국 / 144명	<b>현지연수</b> 4국 / 225명	<b>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b> 10국 / 13명	<b>SGL 전문가 특별과정 초청연수</b> 33국 / 67명
<b>현장교육</b> 우간다 179명	<b>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b> 26국 / 42명(4개교)	<b>주한 대사관 관계자 교육</b> 10국 / 15명	<b>1일 교육</b> 27국 20회 280명

## 함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만들다

동반성장과 공동번영으로 향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관 장관 회의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협력국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정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6년 새마을운동글로벌리더(SGL)를 결성하고,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Global Saemaul Leadership Forum, GSLF)를 매년 개최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성장시켰고, 우리나라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켰다.

2023년 기준

<b>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관 장관 회의</b> 29국 / 참석인원 255명	<b>2023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b> 46국 / 참석인원 270여 명
<b>2023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 세미나</b> 46국 / 200여 명	<b>2024년도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b> 3국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온두라스

## 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 내일을 더 행복하게

미래를 위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목표

지구촌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 발전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상생·번영의 지역개발모델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2인 협력관 체제를 도입해 시범사업 종료 마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 공유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역량 있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 공유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역량 있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

2024년 3~12월

### 하나, 현지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체계 내실화

-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해 협력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
-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로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개발 우수 모델로 정립
- 정부의 대외정책 지원을 위한 민간외교 차원의 개발협력 확대



#### 시범마을 조성사업

2023년 10국 44마을  
→ 2024년 13국 56마을

#### 신규 사업 발굴

5국  
부룬디, 페루, 짐바브웨, 피지, 필리핀

#### 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인프라 + 농업기술 + 새마을운동  
- 현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마련

#### 종료사업 관리

1국 미얀마



### 둘, 외국인 새마을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교육기회 확대

- 국가별 특성, 사업연차 등을 반영한 맞춤형 초청연수 실시
- 새마을운동 효율적 추진 및 현지화 촉진을 위한 거점국가별 현지연수 확대 실시
- 새마을운동 사례공유, 국가정책화 지원 등을 위한 특별과정 실시



#### 현지연수

4국 / 240명

#### 초청연수

9국 / 170명

#### SGL 특별과정

45국 / 110명

#### 협력관 교육

13국 / 21명

####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관 국장급 회의

30국 / 60명

#### 지구촌청년새마을지도자 포럼

60명



#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 미래를 여는 새마을운동

## 김광림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운동은 고루한 옛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혁신 중인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김광림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새마을운동은 54년 동안 세대와 지역을 넘어 근면(勤勉)·자조(自助)·협동(協同)의 새마을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김광림 회장을 만나 새마을운동의 기본 가치가 현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젊어진 새마을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들었다.

글. 이예은 객원기자 사진. 홍보실

### Q.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지요.

“새마을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원조반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꾸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 발전에도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더불어 수려의 ‘양 바퀴’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개통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건국 이후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힙니다. 이런 새마을운동을 제가 섬기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 Q. 새마을운동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가 아마 1971년쯤이었을 겁니다. 교내 새마을운동 노래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품속에 맞춰 아이들에게 ‘새마을 노래’를 가르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선거운동 때 당에서 제공하는 ‘로고송’ 대신 새마을 노래를 동네마다 틀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많이 받았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앞장선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며,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집안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제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 Q. 54년의 역사를 지닌 새마을운동의 현시대 가치가 궁금합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농촌의 혁신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sup>1)</sup>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실천운동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농촌개발운동 겸 정신운동이며, 국민대혁신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분명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浮沈) 또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히, 새마을운동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과 열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락

1) 이번 호의 별책 부록인 <새마을운동 구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본 구상과 추진 방침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김광림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 1948년 경북 안동 출생
-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 1994년 대통령비서실(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 2003년 재정경제부 차관
- 2007년 세명대학교 총장
- 2008~2020년 제18~20대 국회의원
- 2020~2024년 퇴계학연구원, 국제퇴계학회 이사장
- 2024년 7월~현재 제27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취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아프리카-동유럽 등 45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Q.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이 지금도 필요한지요.**

“근면·자조·협동 정신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면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며 이웃 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함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앞장

서는 정신, 그리고 ‘우리’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는 바로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새마을정신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까지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새마을정신과 상통하는 퇴계 이항 선생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퇴계학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까지도 퇴계학연구원에서 퇴계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누군가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바로 ‘경(敬)’이라고 대답합니다. 퇴계 선생의 ‘경(敬)’ 사상에 따르면 끊임 없이 나를 바르게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순리,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경(恭敬)을 실천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의 사상과 새마을운동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은 타인과 사회



에 대한 배려와 공경이 있었기에 54년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 180만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이야말로 몸소 ‘경(敬)’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Q. 사회 변화와 맞물려 새마을운동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새마을운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고 힘든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향약 두레 품앗이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퇴계 선생의 경(敬) 사상까지 접목해,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 비해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아프리카·중남미·동유럽·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45개국에서 이미 새마을운동을 받아들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 지구촌새마을운동을 더

욱 확산시키고, 인류 공영에도 이바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우리의 청년 세대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 신임 중앙회장으로서 새마을운동의 변화를 위해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요.**

“먼저 관련 법령 정비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정부·국회·지방의회·지자체 등과의 민관(民官)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지역사회개발운동 겸 총체적 국가개발운동이었습니다. 그 정신 그대로, 저출생·고령화·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도 극복하는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새마을운동, 지역 개발에서 세계 발전의 모델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농촌에서 시작한 지역사회개발운동이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내세우며, 주민 스스로 협력해 자기 집과 마을을 새롭게 가꾸며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모델로서 전 인류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글. 구자문 한동대학교 교수



라오스 향성쌍양 마을회관에 걸린 새마을기



새마을운동 사업을 논의하는 잠비아 므와치야바의 마을위원회

### ● 노력과 협동으로 이룬 기적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나라의 발전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농촌인구 및 농업종사자가 총인구 및 총고용의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았지만, 농민의 삶은 피폐했다. '농공병진(農工並進,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내세운 정부는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발전에 힘을 쏟는 한편,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농민들도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의지가 만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기술적·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인프라 및 주택개량, 농산물 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이뤄가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했다. 마을지도자 육성과 주민계몽 등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킨 것이다. 초창기에는 정부 주도의 성격이 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정신운동이자,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 개발도상국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필자가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의 한 대학원에 유학했을 때 저명한 개발경제학자 리 플래처(Lee Fletcher) 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농촌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필자도 흥분된 마음으로 이에 대한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생생하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참조하고 실천해야 할 개념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인프라나 주거환경을 제대로 구축해 주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안이 될 것이며, 주민 입장에서 협력으로 마을을 개량해 나간다는 자조 정신 실현의 장이 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들에 전승해 주어야 하며, 분열과 전쟁,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의 문제에 시달

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시대는 바뀌었으나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 정신, 스스로 노력하는 근면함과 자조 정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근래의 화두인 환경친화적 개발, 자원 절약적 생활, 빈부격차 해소 및 커뮤니티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새마을정신은 크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에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엔의 비정부 기구(NGO)로 아프리카-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시작한 2009년부터는 여러 국제협력기구,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개발도상국 농촌에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 ● 글로벌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필자도 2010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외국인 공무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박 4일 새마을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필자는 지금도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네팔 등 아시아 국가와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는데, 그 당시 새마을운동의 자취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지금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명칭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크므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에게 이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①시대가 바뀌어도 새마을정신을 통한 커뮤니티운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②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운동이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농촌 인프라 및 주거 향상, 농업기술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 자조적인 공동체운동 실현 등 커뮤니티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③지구촌새마을운동 사업을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 발전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국제협력단, 농촌진흥원 등의 사업이나 NGO의 사업들이 새마을운동을 직·간접적으로 품고 있으니 좀 더 가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내보이면 어떨까. 이를 통해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모델로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기를 희망해 본다. ☺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각종 문서와 편지, 성공사례 원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작됐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4년 '새마을 타임즈'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만화 이야기를 각색해 전하고자 한다.

다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ep. 4

# 굴하지 않는 신념으로 마을을 변화시킨 개척자

## 인천 웅진군 선재도 오성철 지도자

인천 웅진군의 작은 섬 선재도는 금빛 낙조가 아름답고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곳은 바지락 채취와 보리·감자 농사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낙후된 섬 중의 하나였다. 그런 섬마을을 불과 8년 만에 부유한 마을로 바꿔놓은 한 남자가 있다. 바로 4전 5기의 정신을 보여준 오성철 지도자다.

일러스트. 정재은



### 멈추지 않는 용기, 끝없는 도전

1934년 황해도 벽성군 청용면 웅매리라는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오성철 지도자. 어린 시절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인천 웅진군으로 오게 된다.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교회 목사의 도움을 받아 신학대학에 진학했고, 1958년 군 복무를 마친 후 인천 웅진군 선재도에 정착한다. 종교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큰 꿈을 꿔지만, 당장 마을에 필요했던 것은 가난한 삶을 변화시킬 농촌계몽운동이었다. 오성철 지도자는 계몽운동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꽃게 축양사업'에 나섰다. 운 좋게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마을 개발사업을 벌인 오성철 지도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장 표창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추위로 꽃게 축양사업은 빛을 보지 못했고, 이어 재기를 위해 시작한 연탄사업도 실패했다. 1963년에는 꽃게 축양장을 염전으로 전환해 1,500가마니의 소금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투자자를 잘못 만나 이내 접어야 했고, 이듬해 정미소 사업에도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오성철 지도자가 아니었다.

### 새마을정신으로 마을의 기적을 이룬다

1970년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오성철 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어촌계장직을 맡는다. 마을 개발사업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으나 농촌계몽을 향한 열의만큼은 누구나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성철 지도자는 고심 끝에 굴 양식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조건상 굴 양식이 어렵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추운 겨울에도 뜻을 같이하는 몇몇 주민과 협동해 3ha(약 9,000평)의 굴 양식장을 조성했고, 3개월 만에 4톤을 수확했다. 모든 주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성철 지도자는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주민들은 쓸모없던 갯벌 45ha(약 13만 6,000평)를 굴 양식장으로 개간했다. 또 40ha(약 12만 평)의 바지락 양식장도 조성해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마을 소득은 1971년 호당 60만 원에서 3년 만에 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오성철 지도자의 지도력과 주민들의 협동정신으로 마을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힘을 합쳐 **흥(幸)·은(恩)·조(助)·신(心)**으로 일하면 일도 빠르게 진행되고 능률도 높아지고, 소득도 향상됩니다. 소득이 향상되면 자조자립의 기반이 조성되고, 그 기반으로 근면과 저축하면 함께 잘살 수 있는 마을이 될 것이요. 그 길이 새마을운동입니다.”



### 협동과 결속이 풍요와 번영을 이끈다

이어 오성철 지도자는 어촌계장으로서 조합 지도층의 결속을 다졌고, 해태 양식 시험사업, 굴채묘 시험사업 등을 통해 마을을 더욱더 잘사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주민들은 노력만 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커졌고, 부녀자들까지도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부녀회는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을 확장하는 공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마을이 발전하자 주민들은 삶의 희열을 느꼈다. 이어 지붕 개량, 마을회관 및 새마을회관 건설, 탁아소 운영, 전기와 수도 가설, 대형어선 및 공동운반선 마련, 농지 개간, 양식사업 확장, 목장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77년 선재도 호당 소득은 810만 원을 기록했다. 그해 10월 오성철 지도자는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 협조장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념으로 도전한 그의 집념이 결국 새마을정신으로 꽃 피운 것이다. ♡

#### 초성 퀴즈

오성철 지도자의 말 중 초성만 들어간 단어가 무엇인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힌트: 『바다사나이』(1978년) 20쪽

#### <보기>

- ① 행동지속
- ② 협동정신
- ③ 합동전술



퀴즈 참여하기  
(QR코드 스캔)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장단 및 이사진

#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새 지평을 열다

## 경상북도새마을회



성공적인 지역 사회 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전체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국과 지구촌을 바쁘게 오가며 애쓰고 있다. 경상북도새마을회의 담대한 글로벌 항해를 따라가 보자.

글. 최해진 사진. 임학현

### 우리는 새마을로 만난 가족

1970년,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마을에서 발상한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경상북도가 다시금 새마을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새마을회에서 추진 중인 지구촌새마을운동이 해외에서 특출한 행보를 보이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지난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앙공)에 처음으로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했다.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올해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장으로 선임된 서중호 회장. 서 회장과 중앙공의 인연은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아진산업의 대표이기도 한 서중호 회장은 당시 중앙공의 수도인 방기시의 나콤보 에밀그로스 레이몽 시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지의 환경 정화를 위한 쓰레기 수거 차량, 쓰레기 수거 용기를 비롯해 생필품,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중앙공은 1960년 독립 이후 몇십 년간 극심한 내전에 시달렸다. 다이아몬드, 금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 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가 없



서중호 경상북도새마을회장



2024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투아데라 대통령과 서중호 회장



었다. 그러다 2016년 투아데라 대통령이 집권하며 내전이 줄고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대통령 당선 이듬해에 서중호 회장이 찾아가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하자 돌아오는 건 경계의 눈초리였다. 하지만 3~4년간 진심어린 지원이 지속되자 경계 대신 두터운 신뢰가 쌓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제가 새마을운동을 보며 자란 세대예요. 의지만 있다면 뭐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며 컸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마을정신을 토대로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거예요. 그 정신을 중앙공에 전파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새마을운동을 향한 투아데라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요.”

국가 개발 프로젝트로서 투아데라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전수 요청에 따라 경상북도새마을회는 2023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새마을 기반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단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방기시 일원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3곳을 선정했다. 이들 마을은 전반적으로 농업 인프라가 열악해 농작물 생산량이 적고, 수확 후에도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손실률도 높다. 주택이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학교와 마을회관 같은 마을 공동 시설도 부족하다. 이런 실정에 초점을 맞춰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투아데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실무진이 방한해 새마을운동 관련 연수를 받았어요. 올해 6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찾았고요. 저도 세 차례 중앙공을 방문해 물자를 직접 전달하고 시범마을도 둘러봤어요. 이 시범마을은 5년만 지나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직접 중앙공을 찾아 그 과정을 세세히 살필 겁니다.”

###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력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중앙공 못지않게 필리핀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사상 초유의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의 열쇠’로 불리는 맹그로브 숲의 서식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지난해 필리핀 파나마섬에 맹그로브 묘목을 심었다. 숲이 울창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맹그로브 숲은 수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만큼 생태계에도, 주민들의 소득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래 투자는 장학지원 사업으로도 이어진다. 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성적이 월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정 기부자를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다. 무엇보다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



2024년 4월 필리핀 아클란주에서 열린 한국어 교육장 준공식

육을 병행해 세대를 연결함으로써 필리핀이 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미래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건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취업해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니즈에 발맞춰 협의회와 부녀회는 올해 4월 필리핀 아클란주에 한국어 교육장을 준공하고 책상, 의자, 칠판 등의 기자재를 기증했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한국어를 배운 이들이 향후 경상북도 내 농촌에서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성현 협의회장은 “차후 이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 베풀며 사는 삶

경상북도새마을회는 그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

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 회장으로 선임된 도영순 부녀회장은 2019년에 방문했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그는 “깜라엥 마을로 봉사를 다녀왔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라며 “새마을 가족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문고회장은 15년간 새마을회에서 활동하며 나누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의 진의를 알게 되었다고. 바로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 김성환 회장은 “지난해 베트남 타이라이 마을로 봉사를 다녀왔는데 마을회관에 책이 서너 권밖에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며 “문고회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시범마을에 책이 가득한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김성환 회장의 소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이처럼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 사회의 자립 수준을 넘어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며 새로운 지구촌새마을운동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새마을정신을 토대로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상북도새마을회의 행보에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장단 왼쪽부터 조성현 협의회장, 도영순 부녀회장, 정은미 직장·공장회장, 김성환 문고회장

#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지구촌 이웃

## 경기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



타인을 위한 마음 하나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들.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된 '지구촌 이웃'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이다. 지난 8월 어느 날,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에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을 만났다.

글. 김지현 사진. 오충근

영상으로 만나는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 이야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외국인새마을봉사단원들

### 시흥시에서 만난 세계



유독 더웠던 올여름이다.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도 지나고, 삼복더위의 끝이라 불리는 말복도 보냈건만 모든 게 무색하리만큼 무더위는 끝날 줄을 몰랐다.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을 만났던 지난 8월도 폭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이 동네는 빨간 간판이 많아요. 이 가게도 보세요. 중국 음식점처럼 간판이 빨강쫄?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 빨강은 부귀와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예요.” 이광재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의 말을 따라 주위를 둘러보니 빨간 간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중국 화폐를 비롯해 다양한 나라의 화폐를 바꿀 수 있는 환전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024년 6월 기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통계에 따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만 8,000여 명으로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1%에 이른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꼽힌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에 이어 시흥시가 세 번째로 집계되기도 했다. 시

흥시에 사는 외국인으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만 7,200여 명, 중국인이 6,8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이 5,100여 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시흥시새마을회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2021년 5월 26일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을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에서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15명의 봉사단원이 모집됐다. 오성호 외국인새마을봉사단장은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은 기존 단체들과 분명 다르다고 전했다. 오 단장은 “우리는 모두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흥시 주민’이에요. 외국인 봉사단원들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아래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당한 시흥시민의 일원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라며 “더불어 시흥시에 먼저 정착한 이들이 앞으로 시흥시에 거주하게 될 새로운 외국인 거주자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조수희 부녀회장(왼쪽)과 외국인봉사단원들



### 무더위보다 기분 좋은 이들의 온정

봉사단 결성 후 그해 연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활동을 못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 캠페인과 외국인 가정에 마스크 및 진단 키트 나눔 등 여건히 허락하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후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설 명절 떡국 나누기, 민속촌 나들이, 시흥시새마을회 활동 동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정왕본동 거리 환경정화 활동과 외국인 경로당 어르신 냉면나눔 활동에 나섰다. 거리 환경정화 활동은 시흥시새마을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다. 외국인새마을봉사단원들이 종량제봉투와 집게를 들고 직접 거리청소에 나서기도 하고, 거리 환경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협력을 얻기도 한다.

나부터 '내 집앞', '내 가게' 주변만이라도 청결하게 관리하면 쾌적한 동네가 될 것이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다. 외국인 자영업자의 협력을 끌어낸 데에는 평소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친분을 유지했던 외국인새마을봉사단원들의 역할이 컸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환경정화 활동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다음으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시흥정왕어울림센터 2층에 있는 귀한 동포&외국인 경로당이다.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이 어르

신들에게 여름철 별미인 냉면을 대접하기 위해 자리를 옮긴 것이다. 봉사단원들이 도착하자 이미 많은 어르신이 무더위를 피해 또래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냉면을 준비했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어 보이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바삐 준비에 나서는 봉사단원들이다. 파키스탄에서 온 압잘(Afzal Muhammad) 봉사단원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베풀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며 맛있게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 더 나은 미래를 그린다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의 첫 공식 활동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었다. 광복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직접 태극기를 달았던 외국인새마을봉사단원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오성호 단장은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지 꽤 되었어요. 특히 시흥시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그들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 이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같이 성장하는 것이 나눔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함께'가 중요한 세상이죠"라며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을 다시금 강조했다. 실제로 봉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봉사단원만의 주도적인 운영은 보기 힘들다. 외국인 거주자와 네트워크를 쌓아온 외국인새마을봉사단원의 역할과 외국인공동체의 역할도 크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와 협업해 중국인 교포를 대상으로 한국민속촌 견학을 가는 등 민관기관과의 협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정왕동상인회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탄탄히 쌓아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있다.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것보다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은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우리 사회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는 김근환 시흥시새마을회장. 오늘도 '함께'하는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이 흘린 땀방울 덕분에 더욱 빛나는 내일이 기대된다.



외국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외국인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누는 김근환 시흥시새마을회장



시흥시새마을회 외국인새마을봉사단의 점심 나눔



## 문화 장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 2024 대학새마을동아리 하계 새마을해외봉사단(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 하계 해외봉사단이 지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지로 봉사를 다녀왔다. 해외봉사단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역력한 교육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등 현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열정과 사명감이 넘쳤던 봉사단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글. 최해진 사진. 홍보실

##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롬돌 초중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체육조



유치원 마당 평탄화 작업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은 14박 15일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인 프레이 로미엣 마을, 춘령 음루 마을, 럼돌 뜨미에 마을, 오목뚝 마을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현지 주민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눴다. 네 개 마을의 공통 과제는 울타리 건설이었다. 긴 통나무를 열 맞춰 수직으로 세운 후 수평으로 네 개의 대나무를 못으로 고정하면 된다. 나무를 옮기는 조, 못질할 때 잡아주는 조 등 봉사단을 나눠 모든 인원이 효율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낯선 작업이었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안전하게 완성했고, 단원들은 큰 성취감을 맛보았다. 이어 오목뚝 마을과 럼돌 뜨미에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유치원 같은 공용시설의 외벽을 도색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단원들이 외벽에 도안을 그려 넣으면, 다른 단원들이 밑그림에 맞춰 색칠했다. 노란색 바탕으로 꽃과 나무, 구름 같은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탄생했다. 건물이 화사해지자 전구가 켜진 듯 마을 전체가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춘령 음루 마을은 유치원 마당에 수로를 건설한 후 단층이 생긴 것이 문제였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히 공평이와 삽으로 흙을 퍼내어 단층을 메꿨다. 프레이 로미엣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고무통에 밧줄을 달아 쓰레기통 400개를

만들었고, 이후 봉사단은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도 교육했다.

롬돌 초중교에서는 교육봉사가 이뤄졌다. 보건조, 예술조, 체육조, 과학실험조로 나뉘었는데, 보건조는 학생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손 씻기와 양치질 같은 기본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예술조는 한글을 가르친 후에 간단한 한국어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조는 태권도 배우기와 송판 격파 수업을 마련했다. 과학실험조는 고무줄 자동차, 종이컵 물레방아, 종이컵 전화기, 투석기 같은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다. 교육봉사 마지막 날에는 과자 파티와 함께 운동회가 열렸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판 뒤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심어주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물리적 도움을 넘어 문화정서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했다. 여정은 끝이 났지만, 봉사단과 마을 주민의 연결은 기억을 통해 계속될 것이다.



##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피지 새마을해외봉사단



비가림 하우스의 뼈대 설치 작업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20년부터 피지의 마우, 실라나, 나이마시마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 중이다. 이번 피지 새마을해외봉사단 50명은 이 3개 마을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낯익은 초록색 조끼의 봉사단이 마을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환한 미소로 반겼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피지만의 전통 의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단 선발대는 가장 먼저 마우 마을을 방문해 창고를 건설했다. 창고의 벽과 창문 등 기초 틀을 만들고 설계에 따라 작업한 뒤에 지붕까지 안전하게 올렸다. 이어 비가림 하우스를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배수와 접근성을 고려해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할 부지를 정리했다. 피지의 전통 작물인 카사바가 잘 자라도록 농장의 잡초를 제거했으며, 철근과 시멘트를 활용해 마우 마을과 나이마시마시 마을의 소교량을 확장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다리 위로 흘러넘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부탁한 작업이었다.



마우 마을 창고 건설



벽화 그리기 봉사

봉사단 후발대는 마우 마을을 찾아 비가림 하우스의 뼈대 설치를 진행했고, 시멘트를 이용해 소교량을 확장했다. 또 마을 창고를 미장한 후 페인트 작업까지 완료했다. 실라나 마을에서는 상점을 건설했다. 높은 곳에 올라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고 지붕을 만들어 올렸으며, 바닥에 시멘트를 발랐다. 현지 높은 기온을 고려해 네다섯 명씩 돌아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마을의 공용화장실과 샤워실에 벽화를 그리고, 마을 주변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마친 뒤, 각 봉사단은 현지 아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치와 손 씻기 같은 위생 교육부터 풍선 아트, 종이비행기 접기, 동요 안무 배우기 같은 활동적인 놀이가 펼쳐졌다. 봉사단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인근 폭포를 찾아 물놀이도 즐겼다. 수영을 즐기던 중 제이콥이라는 아이가 단원들에게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묻더니 이내 색깔 고무로 팔찌를 만들어 건넸다. 봉사단원들은 팔찌에서 제이콥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고, 따뜻함에 크게 감동했다. 피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하 주민들 그리고 제이콥의 미소는 봉사단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

### Mini Interview

## 새마을해외봉사단 학생 대표



대동대학교 호텔소믈리에 & 바리스타과 2학년

**박형빈**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학생 대표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따스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저희 작은 바람이었는데, 봉사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든 기색 없이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현지분들을 보며 저희들도 따스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초록색 조끼를 같이 입고 활동하며,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하나로 공감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해외 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구촌새마을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김정현** 피지 새마을해외봉사단 학생 대표

지구촌새마을운동이란 한마디로 세계 여러 나라의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지역 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자립, 지속 가능한 발전, 커뮤니티 참여, 지식과 기술 전수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마을 주민들과 노력 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피지에서의 봉사활동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 경기도새마을회 라오스 해외봉사단



라오스 청소년 새마을봉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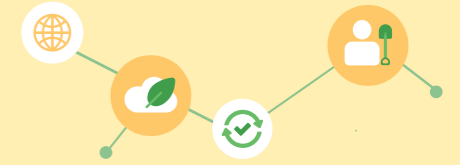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주 나싸이팅구 나쿤 마을에서 해외 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대학새마을동아리와 경기도새마을지도자 해외봉사단으로 구성된 이번 라오스 해외봉사단은 나쿤 마을에 채소재배단지(비가림 하우스) 10동을 조성하고 나쿤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과 컴퓨터 교실을 설치했다. 또한 현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기본 교육을 실시한 후, '라오스 청소년 새마을봉사대'를 조직했다. 앞서 경기도새마을회는 2012년에 라오스 무왕틀라콤 군청과 협정서를 체결,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근면, 자조, 협동의 싹을 틔우다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1년차 국가 온두라스, 파푸아뉴기니

지구촌새마을운동 1년 차 시범마을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는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온두라스와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이제 막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로 마을안길 포장 등의 인프라가 개선되자,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와 '잘사는 우리 마을'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5년, 10년 후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본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전경민



이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파코 사이먼** 파고노피 마을은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의 삶이 빈곤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사바라는 농작물 재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잘 자라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죠. 원물을 그대로 판매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Q. 이번 초청연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우고 메히아**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을 꼽는다면, 조환복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의 강의였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큰 울림을 주었어요.

**아파코 사이먼** 저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하나는 새마을역사관 방문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방문입니다. 새마을역사관에서 과거 전쟁을 겪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렵게 살았던 과거 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발전을 이뤄내 롯데월드타워처럼 세계적인 건물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새마을운동에 임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고 메히아** 새로운 사고방식과 자세를 가지면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발전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처럼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두라스가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아파코 사이먼** 앞으로 우리 마을이 가야 할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하길 바라요. 저 역시 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Q.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알게 됐으며,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고 메히아** 온두라스는 국민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전환점에 있습니다. 국내 정치 구조적인 문제도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을 발전시킨 새마을운동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아파코 사이먼**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모두가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찾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쳤어요. 새마을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Q. 1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얻은 성과와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고 메히아** 아직 더 신경 쓰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온두라스도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새마을운동으로 지금 온두라스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파코 사이먼** 시범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 쓰레기를 줍거나 길가에 꽃을 심는 등 환경 개선 사업위주였습니다. 새마을금이 투입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서 변화를 경험한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 확장과 공중화장실 등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행 청소년 문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Q.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우고 메히아**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 개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아직 국가 지원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죠.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노력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지원 없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고 메히아** 온두라스 지방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고 메히아입니다. 마을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과 연대 중인 사업 성과를 분석하거나 지구촌의 국가개발사업 우수 사례를 온두라스에 접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코 사이먼** 파푸아뉴기니 파고노피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이자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 중인 아파코 사이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을에서는 30~35% 정도의 청소년만 고교 과정을 수료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농업 지식을 전수해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맺다

##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3년차 이상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지구촌새마을운동 3년 차 이상의 시범마을은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전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을 3년 이상 꾸준히 펼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피지의 시범마을 새마을지도자를 만나 변화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전경민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장 카를로스 가리도**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지역에서 기업커뮤니케이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장 카를로스 가리도입니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인 사바나 물라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이며,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 중입니다. **조수아 세두아두아** 피지의 나이마시마시 마을에서 온 조수아 세두아두아입니다. 40여 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2012년 퇴역 후 마을 발전을 위해 장교 때 배운 지식과 리더십을 활용해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각 지역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 카를로스 가리도**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사바나 물라 마을로 이사 와서 13년간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마을이 발전하려면 청년들이 필요한데, 새마을운동을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수아 세두아두아** 저 역시 어떻게 하면 마을 전체가 더 발전하고, 모두 잘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마을운동을 알게 됐죠. 모범적인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이 우리 마을을 넘어 피지 전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Q.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 3~4년이 흘렀습니다. 각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장 카를로스 가리도** 새마을운동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사바나 물라 주민 공동의 노력으로 마을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가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조의 힘'을 또 깨달았죠. 무엇보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아 세두아두아** 나이마시마시 마을에 수세식 화장실을 도입하면서 위생,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죠. 또 마을에 꽃을 심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전개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을 교회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습니다.

**Q. 마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장 카를로스 가리도** 사바나 물라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많이 개선됐지만, 주민의 의식 변화가 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청년 인구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연계된 문제이고, 외부로 나간 청년들에게 우리 힘만으로도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수아 세두아두아**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흘렀지

만, 여전히 일부 주민의 부정적인 시선은 있습니다.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일부 주민이 늦게 나온다면 사업 시작 전부터 차질이 생깁니다. 이후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연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장 카를로스 가리도** 조환복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의 강의가 인상 깊었어요. 주한 멕시코대사를 역임한 만큼 남미 문화의 이해도가 높고, 새마을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셔서 집중과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차 적응과 바쁜 일정으로 조금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조수아 세두아두아**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인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알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담당 공무원에게 건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초청연수를 준비해준 중앙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역 장교 시절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교육을 받아 봤지만, 이번 초청연수가 가장 체계적이고 의미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새마을운동에 임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장 카를로스 가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날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조수아 세두아두아** 긴말 필요 없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이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겁니다. 함께 잘사는 그날이 오기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

# 칭찬으로 물드는 새마을가족의 가을 따뜻한 한마디가 단풍처럼 퍼지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하나둘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들고 이내 온 세상까지 아름답게 변한다. 새마을가족도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을 닮은 것일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한 온기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며 마치 단풍처럼 모두가 행복으로 물들어 가는 중이다.

### 협의회

**소통과 상생으로 풀뿌리 새마을조직의 발전을 이끄는 이경원 대전광역시협의회회장을 칭찬합니다.**

이경원 대전광역시협의회회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풀뿌리 새마을조직의 안정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순회 간담회, 원활한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장 차담회를 통해 대전광역시새마을회의의 중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From\_원광희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장



“새마을운동에 열정적이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원광희 회장의 칭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더욱더 잘 하라는 의미로 알고 매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_이경원 대전광역시협의회장

###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그려가는 박영도 직장·공장 경상남도 통영시협의회회장을 칭찬합니다.**

직장·공장 경상남도 통영시협의회회를 이끄는 박영도 회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대학 새마을동아리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From\_서희석 전 직장·공장 경상남도 진주시협의회장



“칭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공장 경상남도 통영시협의회회는 단합으로 뭉치고 화합으로 내실을 다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박영도 직장·공장 경상남도 통영시협의회장

### 부녀회

**소외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김용희 광주광역시부녀회회장을 칭찬합니다.**

소외된 이웃에 먼저 다가가고, 어떤 일에서든 솔선수범하는 김용희 회장은 그야말로 ‘행복전달자’입니다. 회장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지역 주민에게 공감을 얻는 봉사로 새마을가족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새마을운동과 부녀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회장을 응원합니다.

From\_남희수 대전광역시부녀회장



“칭찬을 받으니 더 힘이 납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힘쓰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_김용희 광주광역시부녀회장

### 문고

**세심한 관심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호현 문고 경상북도 이사/총무님을 칭찬합니다.**

지난여름, 강원도 일원을 돌아다니며 이틀간 진행된 ‘길위의 인문학’에서 이호현 총무님이 회원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 써주신 덕분에 행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총무님으로 인해 앞으로 더 발전할 새마을문고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From\_지용현 문고 경상북도 문경시지부회장



“길위의 인문학이 시군회장님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칭찬을 받으니 기쁩니다. 문고 경상북도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함께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문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_이호현 문고 경상북도 이사/총무

### 청년새마을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지용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교육과 회의가 있을 때 항상 참석해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장지용 회장님을 보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새마을연합 회장님들과 잘 소통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새마을운동에 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From\_김영명 전라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고민이 깊어지고 있던 시기에 이렇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 위로가 됩니다. 전국의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_장지용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 대학새마을

**새마을동아리를 즐겁고 밝게 만드는 안다연 순천대새마을동아리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안다연 회장은 낯을 많이 가리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이야기를 건네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할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배울 점도 많아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From\_백인우 경기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사람들이 저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는지, 또 제가 주변에 어떤 칭찬을 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_안다연 순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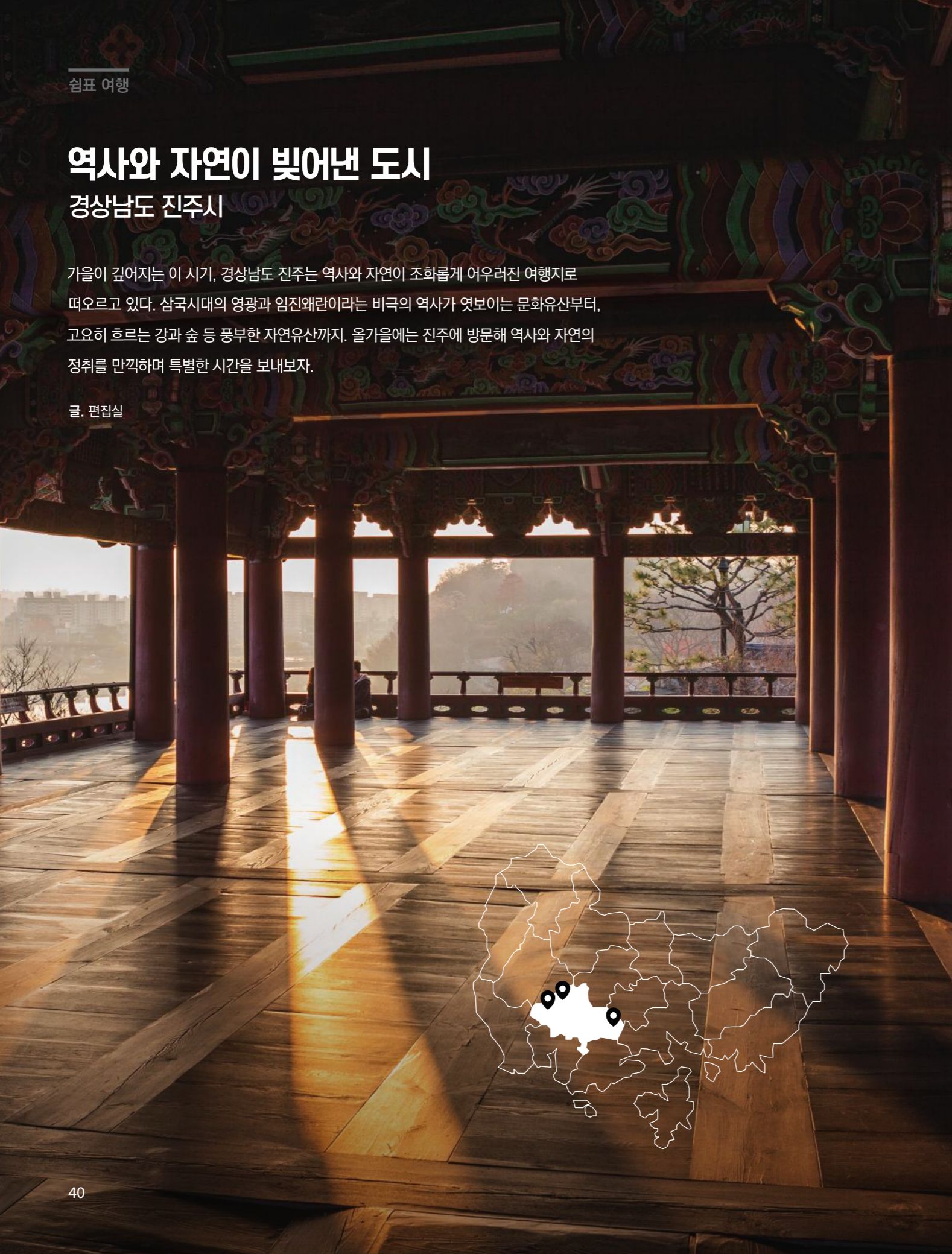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종>으로 이어집니다.

# 역사와 자연이 빚어낸 도시

## 경상남도 진주시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 경상남도 진주는 역사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삼국시대의 영광과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엮이는 문화유산부터, 고요히 흐르는 강과 숲 등 풍부한 자연유산까지. 올가을에는 진주에 방문해 역사와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

글. 편집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축석루



### 역사의 흔적과 가을의 정취가 있는 '진주성'

진주성은 과거의 전투와 비극을 간직한 국가유산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성곽이다. 임진왜란 당시 1592년과 1593년 두 차례에 걸쳐 이곳을 중심으로 진주대첩이 일어났고 또 의기 논개가 왜군 장수를 끌어안고 낙화(落花), 순국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진주성 안에는 임진왜란으로 산화한 순국 선인들을 모시는 '창열사', 논개가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뛰어든 바위인 '의암'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축석루'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축석루는 진주성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이곳에 올라 남강을 내려다보는 절경이 인상적이다. 가을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남강의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져 가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진주의 역사를 더 알고 싶다면 진주성 안에 자리한 국립진주박물관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진주성과 임진왜란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며, 임진왜란 당시에 일어났던 중요한 전투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생생한 역사를 전달한다. 다양한 전시물과 자료를 통해 진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알아보자.

진주성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진주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진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진주성을 첫 번째 코스로 추천한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임진왜란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찾고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자.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



의기 논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의암



남강유등축제의 모습



### 가을빛에 물드는 진주의 심장 '남강'

남강은 진주시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진주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다. 강변을 따라 잘 조성된 산책로는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며, 많은 이에게 고요한 여유를 선사한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풍부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남강은 진주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강이다. 그러므로 진주의 현재와 과거가 공존한다. 남강에 있는 여러 개의 다리는 진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진주교와 남강교는 진주에서는 꽤 오래된 다리로, 강을 건너며 진주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도 손꼽힌다. 남강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아름다워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진주교는 멋진 야경으로도 유명하다. 선학산 전망대에 오르면 남강과 진주교 그리고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을의 남강은 진주 여행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매력을 보여준다. 강변을 따라 붉고 노란 단풍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이룬다. 가을빛으로 물든 남강은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

기며, 강 위로 비치는 단풍잎은 마치 물 위에서 춤을 추듯이 아름답게 움직인다. 강변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진주 여행 백미를 경험할 수 있다. 남강의 잔잔한 흐름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82



진주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남강



### 자연의 선율이 있는 '경상남도수목원'

경상남도수목원은 자연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여행지다. 경상남도수목원은 경상남도의 풍부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약 112ha의 넓은 면적에 3,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으로 물든 수목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수목원은 철쭉원, 야생화원, 허브 정원, 대나무숲길, 단풍나무원, 습지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단풍나무원은 가을철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또 허브 정원에서는 가을의 상쾌한 공기 속에서 향기로운 허브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자연 체험행사도 마련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가을의 자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상남도수목원은 가을의 색채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단풍이 물든 수목원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경상남도수목원의 연못

### 여행지에서 만나는 축제

#### 진주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2024년 남강유등축제



경상남도 진주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2024년 남강유등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주성 및 남강 일원에서 열린다. 남강을 배경으로 펼쳐

지는 축제는 진주대첩을 기리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남강에 띄워진 수천 개의 유등이다. 각양각색의 등불들이 서로 어우러져 남강을 따라 흐르는 모습은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특히 형형색색의 대형 유등은 화려한 볼거리다. 축제 기간에는 남강변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전통 음악 공연, 다채로운 전통놀이 그리고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 트럭존까지 남녀노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직접 유등을 만들어 강에 띄우며 소원을 비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강유등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진주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가을 진주에서 빛과 전통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밤을 만나고자 한다면 2024 남강유등축제를 즐겨보자.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부터 20일(일)까지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 및 남강 일원

#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작은 실천 버려질 물건에서 숨겨진 가치 찾기

우리는 종종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쉽게 물건을 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버려질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잠재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쓸모없어진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글. 편집실



## 우리가 놓친 재활용의 기회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 <What a Waste 2.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30%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지로 향한다고 한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 기준으로 생산된 3억 6,000만 톤 중 91%가 재활용되지 않은 채 버려졌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폐기물로 버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바로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 매립 폐기물 중 56%는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에 비해 재사용 및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버려지는 것에 숨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버리지게 내버려 두었을까.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일상에서 사용되고 제 역할을 다한 물건에도 새로운 가치가 있음을 생각해 보자.

## 일상 속 숨은 자원의 재발견

최근 다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상을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폐

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커피가 있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는 별개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커피는 평균 400잔, 이 과정에서 커피 찌꺼기는 약 15만 톤이 나온다. 대부분의 커피 찌꺼기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지지만, 알고 보면 커피 찌꺼기만큼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폐기물이 없다. 먼저 커피 찌꺼기는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릇에 담아 냉장고나 신발장에 두면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식물의 비료로도 좋다. 질소가 풍부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천연 스크럽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커피 찌꺼기를 오일과 섞어 피부에 문지르면 각질 제거에 좋다. 일상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리되며 각종 바이오연료나 화장품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커피 찌꺼기는 단순히 버려질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지난여름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지켜줬던 선크림도 살펴보자. 여러 종류의 선크림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은 사용기한을 넘기기도 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선크림은 변질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그냥 버려야 할까. 선크

림에 함유된 오일 성분은 녹과 스티커 자국 그리고 물때 제거에 효과적이다. 청소가 필요한 부분에 선크림을 바르고 10~20분 정도 후 닦아내면 말끔하게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구멍 난 고무장갑은 손가락 및 손목 부분을 잘라 다양한 크기의 고무줄로 활용하거나, 코팅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 홍보물은 잘 접어 종이상자로 이용하는 등 조금만 생각한다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들에도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작은 노력이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큰 변화를 만든다. 일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버려지기 전에 새로운 쓰임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는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

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들에도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작은 노력이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큰 변화를 만든다. 일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버려지기 전에 새로운 쓰임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는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

〈새벽종〉 읽고, 탄소중립 실천하자!  
탄소중립 실천에 진심인 새마을가족 인증 사진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박정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p>“예전에 먹고 남은 김밥을 버리지 않고 얼려뒀어요.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금방 만든 김밥 같아요. 컵라면과 먹으니 더 맛있네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양승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p>“냉동고에 얼려 뒀던 가래떡이 생각나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오래된 재료를 처리했고, 맛있는 간식도 먹어서 좋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심선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p>“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며 늘 함께 봉사하는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배말칼국수를 먹었어요. 깨끗이 비운 그릇이 바로 환경보호 실천이죠.”</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이미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p>“카페 마감 전에는 반드시 우유팩을 수거해 씻고 말립니다. 번거롭지만 자원 순환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p>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세요. **다회용기 사용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쓰레기 줍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호 <새벽종>에 소개되며,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직접 촬영한 사진(2MB 이상)과 소개글(50자 이내)

보내시는 방법

QR코드 스캔 후 파일 첨부

## 중앙회

### 중앙회 페이스북, 소셜아이어워드 비영리단체분야 '대상'

중앙회(회장 김광림)는 지난 7월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4'에서 비영리단체분야 페이스북 대상을 수상했다.

8,4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앙회 페이스북은 전체적인 피드 디자인이 직관적이며 가독성이 좋고 생동감이 있는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셜아이어워드(소셜 인터넷 서비스 혁신대상)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브랜드 프로모션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 3,800명으로 구성된 아이어워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소셜인터넷서비스 평가 시상식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전문가 페스티벌 행사다.



### 대학새마을동아리 하계 해외봉사단 해단식

중앙회(회장 김광림)는 지난 8월 30일 본관 제4강의실에서 '2024 하계 새마을 해외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6일 발대식을 갖고 출국한 50명의 새마을 해외봉사단원들은 14박 15일 동안 피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마을 해외봉사단은 피지에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보건교육,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교류 등 현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중앙회(회장 김광림)는 지난 8월 19일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마련한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초청 새마을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13박 14일 동안 38명의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 추진 전략과 액션플랜 수립, 국가별 성공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현지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3년 차 사업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 1년 차 신규 사업국가인 온두라스는 동일 언어권 국가로 양국의 연수생들이 정보와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새마을교육에 동반 입교했다.



### SGL, 전문가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회장 김광림)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SGL, 전문가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0여 개국, 60여 명의 SGL 대표 및 전문가, 새마을협력관, 우수마을 지도자 등이 참여했으며, 연수생들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와 더불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SGL 국가 간 지구촌새마을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 서울



#### 제12기 독서문화지도사 양성 교육

문고 서울시지부(회장 김민정)는 지난 8월 19일 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문고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독서문화지도사 양성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서울시 새마을회(회장 김연표)가 후원하고 문고 서울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독서문화지도사 양성 과정은 전래놀이 1, 2급 자격증 과정으로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3시간(10:00~13:00)씩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 인천



#### 임원워크숍 및 직장·공장 재능기부활동

인천시광역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지난 8월 23~24일 옹진군 덕적도 일원에서 시군구단체장 20여 명과 '인천시새마을회 임원워크숍'을 실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직장·공장 인천시협의회(회장 정재수)는 지난 7월 13일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에서 재능기부를 실시했다. 올해로 22회째인 이번 활동은 소속 회원사의 기술과 재능을 바탕으로 의료봉사, 집수리, 시력 측정을 통해 돋보기 제공, 공구 수리, 갈갈이 봉사 등을 펼쳤다.

### 부산



#### 추석맞이 쪽방촌 생필품 지원 및 노동교류 도서전달식

부산시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추석맞이 사랑나눔 생필품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촌 및 복지사각지대 800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문고 부산시지부(회장 김종숙)는 지난 8월 27일 합천군청에서 문고 경남도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서 5,000권을 전달했다. 도서는 합천군 새마을작은도서관에 2,000권, 합천군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500권씩 배부됐다.

### 광주



#### 대학새마을동아리 농촌봉사활동

광주광역시 대학새마을동아리회(회장 김채현)는 지난 8월 29~30일까지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마을에서 광주 소재 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아이미용활동,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마을회관 정리, 해수욕장 환경정화, 고추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대구



#### 아이들과 함께하는 글그림 경연대회

문고 대구시지부(회장 이승로)는 지난 8월 17일 대구시 민간어린이집 300개소 원아 1,000여 명이 참여한 '탄소중립, 지구를 지켜라' 그림경연대회와 독후감·편지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그림부문 170여 명과 독후감 및 편지글부문 30여 명에게 시상상(최우수), 시의회의장상(우수), 시교육감상(우수) 등을 시상했다. 그림부문 우수작품은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로비에 4주간 전시된다.

### 대전



#### 하천정화활동 및 업무협약

대전시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7월 26일 남여지도자 4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갑천 상·하류 총 25km에서 장마와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와 부유물을 집중 수거하며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시새마을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세종시새마을회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울산



빈집나눔, 온기나눔 마을공동체 사업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쉼터, 주차장, 텃밭 등 5개 구군 44개소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56개 읍면동 남녀지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쉼터,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를 조성하고 지속적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기원 제조작업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7월 23일 전의면 왕의물 초수 공원 주변에서 남녀지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작업을 펼쳤다. 이날 제조작업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국제사업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8개 민간단체가 연대해 24개 읍면에 조성된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



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

직장·공장 경기도협의회(회장 강동호)는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이천 일대에서 2024 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을 펼쳤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벼 농가를 찾아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 목장을 찾아 한우 축사 일을 도왔다. 다음날은 인문학 숲 체험활동과 함께 이천 도자마을을 찾아 도예공방 탐방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강원



길위의 인문 및 희망노을 밥상

문고 강원도지부(회장 김찬윤)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시 일원에서 문고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고 워크숍 및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하고 신경림 시인의 시 <목계나무>의 배경이 된 목계나루터와 강배체험관을 방문했다. 부녀회(회장 전미용)는 18개 시군 500여 명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이 되어드리고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희망노을 밥상 사업을 시군별례리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



'세상을 움직이는 청년의 꿈' 캠프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충청권 청년조직의 연대 기반 확충을 위한 캠프를 실시했다. 대화건설(대표 이화련)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캠프는 '세상을 움직이는 청년의 꿈! 내일의 변화 Saemaul!'을 주제로 충북, 대전, 세종, 충남의 청년연대와 대학동아리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남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및 업무협약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쌍퉁구 삼판마을에서 자체 라오스 시범마을 선정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도새마을회관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충남의 행복 공동체 조성과 범죄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



베트남 국제협력사업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박용운)는 지난 7월 16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덕락성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설 보수공사, 마을환경 개선 등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용운 협의회장은 "대학새마을동아리회원들과 함께 펼친 해외협력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으며, 앞으로도 베트남에 새마을운동을 통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



한마음 워크숍 및 깨끗한 전남 만들기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금호화소리조트에서 '깨끗한 전남 만들기 실천운동'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군회장단 및 사무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8월 30일에는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해변에서 영광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장성군 등 6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경북



경북·전남 대학새마을동행 사업 평가보고회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 일원에서 경북·전남 대학새마을 회원, 지도교수, 협의회 임원 등과 경북·전남 대학새마을 동행 사업을 통해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 7월 19일 도새마을회관에서 임원과 시도사무국장 및 지도과장 40여 명과 경상북도새마을운동 상반기 사업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경남



경상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산청군가족센터와 산가원클럽장에서 도새마을회 임원과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남동현)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들과 새마을운동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연대를 통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소통과 미래지향적인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



새마을부녀봉사상 시상식

제주특별자치도부녀회(회장 홍경애)는 지난 7월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김정임 중앙부녀회장,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읍면동부녀회장과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부녀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 이도2동 고인숙 부녀회장이 대상을 받았으며, 영천동 고영숙 부녀회장, 안덕면 신선순 부녀회장, 봉개동 윤현숙 부녀회장이 각각 새마을부녀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북5도



연평도 안보견학

평안남도협의회(회장 김기현)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조성원 이북5도 새마을회장, 조경조 평안남도 도지사, 김중각 평안남도지회장을 비롯한 남녀지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웅진군 연평도로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2010년 11월 23일 서해교전 당시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파손된 현장을 둘러보고 연평평화전망대, 망향전망대, 평안안보교육장 특강 및 대피소, 포7중대 등을 방문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중구 중림동협의회(회장 박찬표)와 부녀회(회장 오경숙)는 지난 8월 7일 주민센터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및 경로당 어르신 80여 명에게 대접했다.
- 서울 용산구 후암동부녀회(회장 방유미)는 지난 7월 11일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밑반찬 전달식을 열고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 문교 서울 강북구 삼양동분회(회장 김혜정)는 지난 8월 8일 주민센터 마을문고에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을 열고 열쇠고리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부녀회(회장 유영란)는 지난 8월 14일 주민센터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만든 삼계탕을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 서울 노원구부녀회(회장 이종선)는 지난 8월 12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160가구를 위한 '복날 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부녀회(회장 조동숙)는 지난 7월 4일 주민센터에서 만든 밑반찬을 관내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등 20여 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서울 송파구부녀회(회장 한선영)는 지난 7월 11일 초복을 앞두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0여 가구에 전달했다.

- 인천 중구 개항동부녀회(회장 이학연)은 지난 8월 20일 내리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아이미용활동을 펼쳤다.



- 인천 미추홀구 송의1·3동부녀회(회장 양수진)는 지난 8월 24일 송의목공예센터에서 관내 소외계층 10여 명과 도마 만들기 체험 활동을 했다.



- 인천 중구 개항동협의회(회장 조세옥)와 부녀회(회장 이학연)는 지난 8월 5일 행정복지센

터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쌀 10kg 45포대 (16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 인천 부평구 청천1동부녀회(회장 박명자)는 지난 7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 인천 계양구 계산1동부녀회(회장 오애선)는 지난 7월 15일 초복을 맞아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어르신 70여 명에게 대접했다.



- 인천 서구 청라1동협의회(회장 변동진)와 부녀회(회장 심설희)는 지난 8월 15일 아파트 태극기 거치대 설치 시범사업 및 광복절 태극기 게양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아파트 2개소에 거치대 20개를 설치해 태극기 40개를 게양했다.



서울·인천·강원

- 강원 동해시 북삼동부녀회(회장 김남희)는 지난 7월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만들어 전달했다.
- 강원 정선군 남면부녀회(회장 신옥녀)는 지난 8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과 밑반찬을 전달했다.
- 강원 양구군부녀회(회장 유선녀)는 지난 6월 28일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15명을 초청해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전개했다.



- 강원 고성군 동해면협의회(회장 박상보)와 부녀회(회장 이주복)는 지난 8월 23일 경로당 34개소를 순회하며 팍빙수를 만들어 전달했다.
- 강원 양양군 양양읍부녀회(회장 이귀옥)는 지난 7월 18일 군청에 인재육성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최기섭)는 지난 8월 14일 효창공원역 앞에서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친환경 수세미 200개를 배포했다.



- 서울 노원구새마을회(회장 김오규)는 지난 8월 13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회용품 및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를 위한 장바구니를 배포했다.



- 인천 중구 영종1동협의회(회장 민홍식)와 부녀회(회장 박금옥)는 지난 8월 25일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 일대에서 줍깅활동을 펼쳐 쓰레기를 수거했다.



- 인천 연수구 옥련1동부녀회(회장 정정숙)는 지난 8월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 모으기 활동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120kg과 캔 60kg을 수거했다.



- 인천 남동구 간석4동협의회(회장 방동조)와 부녀회(회장 박복연)는 지난 7월 14일 석산로 일대에서 잡초 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김강석)는 지난 7월 28일 대포동재활용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자원재활용 사업을 전개하고 수거한 페트병과 우유팩을 매각했다.



-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함순천)는 지난 8월 15일 칠전동새마을농장에서 들깨 모종을 심는 휴경기 작황 사업을 전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중구부녀회(회장 배수연)는 지난 7월 18일 이동식 빨래 세탁 차량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이불 23채를 수거해 세탁했다.
- 부산 강서구부녀회(회장 정경자)는 지난 7월 9일 구청에서 '온정품은 사랑의 이불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 200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했다.



- 부산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는 지난 8월 7일 이동식 세탁 차량을 운영하고 관내 어르신들의 이불 27여 채를 수거해 세탁했다.



- 대구 중구 남산4동협의회(회장 김상태)는 지난 8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으로 육수용 멸치 50상자를 기탁했다.
- 대구 남구 대명6동협의회(회장 정재환)와 부녀회(회장 김호숙)는 지난 7월 1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70가구에 전했다.
- 대구 수성구 범물1동협의회(회장 김지석)와 부녀회(회장 김선경)는 지난 8월 14일 노인

복지관에서 어르신 400여 명에게 갈비탕과 수박을 대접했다.



- 울산 동구 남목2동협의회(회장 김은규)와 부녀회(회장 강영희)는 지난 8월 8일부터 23일 까지 새남마을 외부 벽체 개선 집수리 사업으로 외벽 페인트 작업과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 울산 울주군새마을회(회장 송병열)는 지난 9월 2일 범서읍 관내에서 홀몸 어르신 가구의 싱크대를 교체하고 화장실을 수리하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협의회(회장 은성조)는 지난 7월 13일 관내 취약계층 5가구의 노후화된 현관문 방충망을 수리하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부녀회(회장 김연순)는 지난 8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을 실시하고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곰탕과 김을 전달했다.
- 경기 오산시 대원2동부녀회(회장 오예순)는 지난 7월 1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50가구를 위한 삼계탕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경기 안성시 공도읍협의회(회장 이호일)와 부녀회(회장 김영순)는 지난 8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120명에게 삼계탕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복달임 사업을 펼쳤다.



- 세종 연서면협의회(회장 류재웅)와 부녀회(회장 윤춘애)는 지난 8월 30일 연서면 서세종농협 앞 유희지에서 '사랑의 김장용 배추심기 사업'을 전개해 김장용 배추 모종을 심었다.



- 제주 제주시 오라동부녀회(회장 오명순)는 지난 7월 28일 주민센터에서 관내 상반기 출산 가정 72가구에 아동 내의를 전달하는 1% 후원사업을 전개했다.

부산·대구·울산·경기·세종·제주·이북5도

탄소중립 실천



- 부산 동구 수정2동협의회(회장 문영호)와 부녀회(회장 백안심)는 지난 7월 30일 관내 꽃밭과 화단에 여름꽃 모종 400개를 심었다.



- 부산 동래구 사직1동부녀회(회장 신복숙)는 지난 7월 17일 관내 도로변 화단을 정리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줌깅데이를 실시했다.



- 부산 사하구부녀회(회장 박진숙)는 지난 8월 13일 대한제강 직원들과 함께 괴정천 수질 개선을 위해 EM(유용미생물군)흙공 1,500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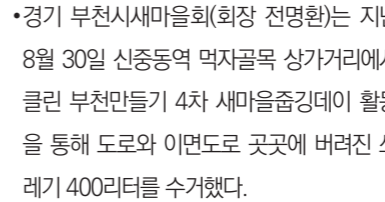
-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임재역)와 부녀회(회장 양미경)는 지난 8월 9일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EM(유용미생물군)흙공 350여 개를 던지고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 울산 남구 신정5동협의회(회장 박무성)는 지난 9월 3일 관내 23개소 버스 정류장에서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불법 광고물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과 방역을 실시했다.



- 울산 북구 농소2동협의회(회장 김영식)와 부녀회(회장 김영숙)는 지난 7월 24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동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경기 남양주시새마을회(회장 이덕우)는 지난 7월 26일 진전읍 왕숙천 일원에서 지역하천을 살리기 위한 '새마을이 쓰아올린 작은 공' EM(유용미생물군)흙공 던지기 사업을 실시했다.
- 세종 연서면협의회(회장 류재웅)와 부녀회(회장 윤춘애)는 지난 7월 26일 농촌기술센터 인근에서 코스모스길 조성을 위한 제초 작업과 코스모스 씨앗 뿌리기 활동을 실시했다.



- 세종 아름동협의회(회장 김상영)와 부녀회(회장 고현숙)는 지난 7월 19일 관내 공원의 꽃밭 풀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세종 부강면협의회(회장 허용무)와 부녀회(회장 이은영)는 지난 8월 24일 부강역 인근 꽃동산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 문교 제주 서귀포 안덕면분회(회장 장금희)는 지난 8월 7일 서광서리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해녀의 폐잠수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교육과 남방큰돌고래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서구새마을회(회장 박길호)는 지난 7월 17일 관내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구청에 기탁했다.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부녀회(회장 서광자)는 지난 7월 5일 신탄진 공영주차장에서 삼계탕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어르신 및 취약계층 3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 광주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와 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지난 7월 4일 (사)자비신행회에서 복날을 앞두고 관내 어르신 200여 명에게 닭죽을 대접했다.



- 광주 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지난 8월 22일 생활문화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돌봄잔치'를 개최했다.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협의회(회장 김학기)와 부녀회(회장 이기숙)는 지난 8월 18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2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활동을 진행했다.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협의회(회장 어현우)와 부녀회(회장 정규진)는 지난 7월 22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직장·공장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신동규)는 지난 8월 23일 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이웃돕기 일일호프 사업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165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기탁했다.

- 충남 서산시 동문2동협의회(회장 문천식)와 부녀회(회장 최선미)는 지난 8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밀반찬을 저소득 3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충남 금산군 금산읍협의회(회장 정귀연)와 부녀회(회장 김정자)는 지난 8월 23일 행정복지센터에 금산삼계탕축제에서 얻은 수익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 충남 부여군 세도면부녀회(회장 신영순)는 지난 8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 50만 원과 1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협의회(회장 김창남)와 부녀회(회장 김미연)는 지난 8월 13일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해 라면과 함께 삼계탕을 전달했다.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회장 방성봉)는 지난 7월 22일 울어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황등면과 여산면 이재민 가구에 100만 원의 성금과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전북 남원시새마을회(회장 배종선)는 지난 7월 12일 남원향교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어르신 1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 전남 순천시 낙안면부녀회(회장 김효정)는 지난 8월 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어르신 40여 명에게 밀반찬을 전달했다.



- 전남 영암군새마을회(회장 박찬)와 부녀회(회장 안석심)는 지난 7월 29일 관내 다자녀 기초수급 가정을 방문해 이웃사랑 후원금 50만 원과 고기살·영양제 등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 경북 포항시 환여동협의회(회장 김중우)는 지난 7월 16일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6곳을 차례로 방문해 시원한 간식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경북 경주시 중부동협의회(회장 박상웅)와 부녀회(회장 장정희)는 지난 8월 14일 관내 소외계층 가구의 오래된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집 청소 및 물품 정리정돈을 실시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부녀회(회장 정남경)는 지난 8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20대를 기탁했다.

- 경남 사천시 향촌동협의회(회장 이현찬)와 부녀회(회장 정숙연)는 지난 8월 28일 지역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사업'을 전개했다.



- 경남 밀양시부녀회(회장 이양자)는 지난 7월 15일 새마을회관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지역 내 보호아동과 저소득층 64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 경남 양산시 원동면부녀회(회장 최인숙)는 지난 7월 23일 중북을 맞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달임 사업을 펼치고 관내 경로당에 계란(1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문고 대전 대덕구지부(회장 김인숙)는 지난 8월 20일 환경정화를 위한 줍깅데이 활동으로 관내 도로변과 공원에 방치된 쓰레기,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유희권)는 지난 7월 12일 새마을회관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휴대용 손수건 200장을 배부했다.

- 충북 영동군 학삭면협의회(회장 장두석)와 부녀회(회장 장순희)는 지난 8월 2일 관내 농약병을 수거하고, 면사무소 일원에서 분리배출 작업을 실시했다.



- 충북 진천군 이월면협의회(회장 이곡희)와 부녀회(회장 김명숙)는 지난 8월 14일 장양천에서 수질 정화를 위한 EM(유용미생물군)휴공 100개를 투척했다.
- 충남 천안시 쌍용3동협의회(회장 엄형열)와 부녀회(회장 김진민)는 지난 7월 22일 봉서산 가꾸기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산책로에 쓸려 온 쓰레기를 수거했다.
- 충남 당진시 면천면협의회(회장 호선기)와 부녀회(회장 이영란)는 지난 8월 22일 면천읍성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그림숲 만들기 대상 지역을 청소했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부녀회(회장 정지희)는 지난 7월 17일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센터 및 관내 경로당 주변 화단에 백일홍과 설악초 모종 1,200여 개를 심었다.



- 전북 김제시새마을회(회장 백창민)는 지난 7월 16일 지구환경 보호와 청정 김제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수거된 10톤 가량의 폐농약병을 환경공단에 전달했다.
- 전남 강진군새마을회(회장 김상완)는 지난 7월 4일 탄소중립을 위한 깨끗한 전남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칠량면 32개 마을에서 수거한 1톤가량의 폐농약 비닐봉지와 2톤가량의 페플라스틱 등을 분류·정리했다.



- 전남 함평군새마을회(회장 김창문)와 협의회(회장 최종민), 부녀회(회장 모성임)는 지난 8월 13일 안악해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바다에서 떠밀려 온 낚은 어망, 페트병, 스티로폼 등을 수거했다.



- 경북 포항시 흥해읍협의회(회장 강경수)는 지난 8월 16일 칠포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해변으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와 여름 휴가철 동안 발생한 생활쓰레기 300kg을 수거했다.
- 경북 구미시 양포동협의회(회장 김종익)와 부녀회(회장 심미규)는 지난 8월 20일 관내

- 주요 도로변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장천면협의회(회장 장윤희)와 부녀회(회장 박계조)는 지난 8월 16일 관내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 경북 영주시새마을회(회장 우영선)는 지난 8월 23일 영주역 광장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협의회(회장 강원아)와 부녀회(회장 이정은)는 지난 8월 28일 각 가정에서 모아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약 750kg을 지역 환경공단에 매각했다.
- 경남 밀양시 내일동부녀회(회장 공종미)는 지난 9월 5일 추석을 맞아 밀양시를 방문하는 귀향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 화단에 백일홍 5,500개를 심었다.



- 경남 합천군 쌍백면협의회(회장 선우철)와 부녀회(회장 박영자)는 지난 9월 7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면민들을 위해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 謹 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방철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협의회장 영면

1962. 05. 06. ~ 2024. 08. 15.

한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당신의 온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장기기증으로 마지막까지 생명을 나누신 숭고한 마음은  
우리 가슴속에서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한 이웃이자 모범적인 새마을지도자였던  
당신의 따뜻했던 미소와 끝없는 사랑,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방철민 청천면협의회 회장이 지난 8월 15일 영면에 들었다. 방철민 회장은 8월 12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임하던 중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평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기와 뼈, 혈관, 피부 조직을 기증했고, 이를 통해 4명의 새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7+08월호 독자 의견



이정숙

새마을인명구조단을 만든 이강우 단장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지만 하네요.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채태익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소개 코너가 재미있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마을이나 새마을 마크가 있는 모자를 본 기억이 있는데, 영상 속에 새마을운동이 이렇게나 많이 담겼다니요. 역시 새마을운동입니다. 더 많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퍼지면 좋겠어요.



이수민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해 완주군새마을회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감자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감자 요리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함께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새마을모자도 잘 어울리고요.



윤주영

이번에 실린 냉장고 파먹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내용이 좋았어요. 일상에서 쉽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줘서 좋습니다. 저도 다 회용 물병을 사용하면서 환경보호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편한 것도 좋지만 환경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깐요.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Global Saemaul Leadership Forum and Global Saemaul Undong Senior Officials' Meeting 2024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 회의

September 4 (Wed) - 6 (Fri) | Doubletree by Hilton Seoul Pangyo



Hosted/Organized by



Sponsored by

